

방송시청행태 변화 동향

김 윤 화*

1. 개요

방송을 시청하는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TV라는 유일한 기기에 의존하여 주로 집에서 방송을 시청하던 행태에서 다양한 컨넥티드 단말기로 VOD나 온라인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집 뿐만 아니라 이동중 또는 다양한 외부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시청하는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VOD나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몰아보기 시청(Binge Viewing)이라고 하여 시청하고자 하는 드라마나 TV 쇼 시리즈를 여러편씩 몰아서 한꺼번에 시청하는 행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VOD 서비스를 중심으로 방송시청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방송시청행태 변화 동향

방송시청 행태가 전통적인 TV라는 고정형 기기를 중심으로 실시간방송시청이 중심이던 양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어디서건 방송시청이 가능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주문형동영상서비스(VOD)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부연구위원, (02)570-4077, yunabella@kisdi.re.kr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 등이 자연스러운 방송시청행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에릭슨 컨슈머랩(Ericsson Consumerlab)이 시행한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15,000건의 온라인 인터뷰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영화나 TV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보거나 녹화하여 보는 시청방식은 점진적으로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 콘텐츠를 다운로드해서 보는 방식은 2011년에만 해도 38%였는데 2013년 29%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VOD 및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 이용률은 2011년 61%에서 2013년 63%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방송 시청방식의 변화

	2011	2012	2013	증감세
실시간 TV시청	83%	79%	83%	유지
VOD 시청	61%	62%	63%	증가
녹화한 방송 시청	47%	36%	31%	하락
다운로드를 통한 시청	38%	35%	29%	하락

주: 1)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하고 매주 TV나 비디오를 시청하는 미국, 영국, 스웨덴, 스페인, 대만, 중국, 한국, 브라질 응답자 기준임.

2) VOD 시청은 유튜브를 포함한 주문형/시간이동TV와 비디오스트리밍을 말함.

자료: Ericsson Consumerlab(2013).

그러나 VOD 및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 이용 증가가 실시간 TV 시청행태를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된 에릭슨 컨슈머랩의 결과를 보면, 2011년 83%이던 실시간 TV 시청방식 이용률은 2013년 83%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12년 12월 VUBIQUITY가 미국 내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VOD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결과에서도, TV 이용방식의 순은 실시간TV 44%, DVR 녹화 시청이 22%, VOD 시청이 14%으로 실시간TV 시청이 여전히 가장 높고, VOD 시청이 3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OTT, VOD 등의 비실시간방송 플랫폼의 확산이 실시간TV의 매력도를 저하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TV 채널 및 프로그램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방향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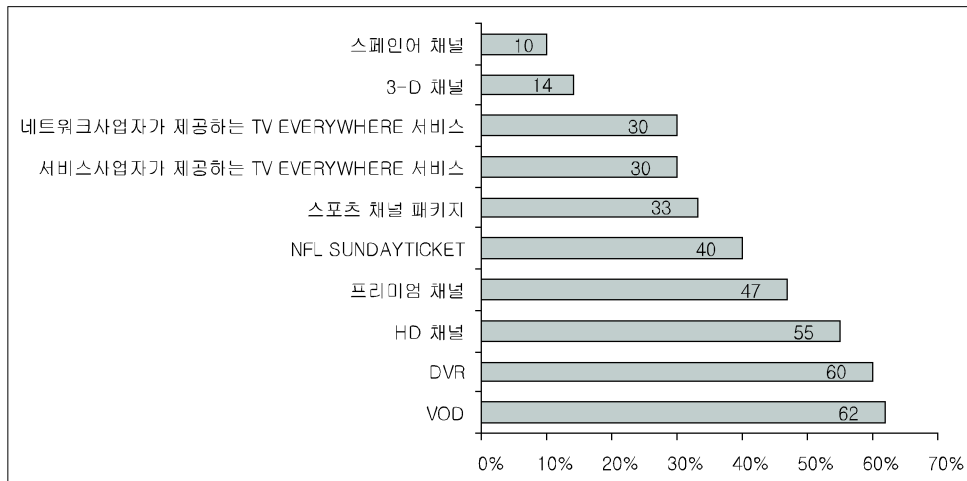
<표 2> 미국인의 TV 시청방식

실시간 TV시청	DVR 녹화 시청	VOD 시청	온라인 소스	DVD/블루레이	저장된 콘텐츠 시청	기타
44%	22%	14%	6%	7%	5%	2%

주: 2012년 12월 미국 내 2,097 가구 대상 조사 결과임.
 자료: VUBIQUITY(2013).

또한 VUBIQUITY의 VOD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TV 이용시 가장 쓸모있는 서비스로 VOD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양한 TV 이용 서비스 중에서 VOD에 대한 가치평가가 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DVR 60%, HD채널 55%, 프리미엄 채널 47%, 스포츠 채널 패키지 33%, TV Everywhere 서비스 30%의 순이었다.

[그림 1] TV 이용 서비스별 가치평가



주: 2012년 12월 미국 내 2,097 가구 대상 조사 결과임.
 자료: VUBIQUITY(2013).

연령별 VOD 이용률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8~34세 연령그룹이 여타 연령그룹에 비해 가장 VOD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의 18~34세 연령대가 전체 VOD 이용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34~49세 연령그룹과 50세 이상 연령그룹이 VOD 이용의 각각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미국인의 연령별 VOD 이용자 구성비

연령그룹	TV 이용률	VOD 이용자 구성비
2세~11세	9%	12%
12세~17세	5%	11%
18세~34세	17%	31%
35세~49세	20%	23%
50세~99세	48%	23%

자료: 닐슨(2013).

2012년 12월 VUBIQUITY가 미국 내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몰아보기 시청행태를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절반이 넘는 56%가 몰아보기 시청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인의 절반이 넘는 시청자가 드라마나 TV쇼 전체 시리즈를 빈번히 혹은 종종 한꺼번에 시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몰아보기 시청행태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시청자가 36%에 달했다. 그리고 몰아보기 시청시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실시간, VOD, DVR, 온라인 소스, DVD/블루레이, PC/태블릿/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콘텐츠 이용의 순으로 나타나, VOD 이용이 실시간TV 이용 다음으로 몰아보기 시청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미국인의 몰아보기 시청(Binge Viewing) 방식

실시간 TV시청	VOD 시청	DVR 녹화 시청	온라인 소스	DVD/블루레이	저장된 콘텐츠 시청
93%	88%	80%	72%	71%	60%

주: 2012년 12월 미국 내 2,097 가구 대상 조사 결과임.

자료: VUBIQUITY(2013).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VOD, OTT 등의 비실시간방송 플랫폼의 확산이 방송시청 행태를 기존의 의존적인 방식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VOD 서비스는 이용자의 조작 어려움과 콘텐츠 수급의 어려움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지지부진해 왔으나,¹⁾ 최근 몰아보기 시청 트렌드까지 이끌며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대의 경우 VOD 이용률이 9.5%, 30대 7.5%로 20-30대를 중심으로 VOD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²⁾

VOD 이용 증가 외에도 컨넥티드 단말기의 확산, 소셜네트워크의 확산 등이 방송 시청 방식 변화에 일조하고 있다. 미국 VUBIQUITY의 자료에서 보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TV 스크린을 보유한 가정이 2010년 57%였던 반면, 2012년에는 69%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이 각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의 보유율이 높아진 것도 방송시청행태의 변화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또한 최근에는 소셜 TV라고 해서 TV를 시청하면서 SNS, 메신저 등을 동시에 이용하는 행태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능동적인 TV 시청 패턴의 증가를 이끄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³⁾

1) 닐슨(2013)

2) 김윤화(2013)

3) 정용찬 외(2012)

참고문헌

- 김윤화 (2013), “지상파TV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 분석: 실시간 시청과 VOD 시청행태 비교”, 《KISDI STAT REPORT》 13-05-2, 2013. 5. 25.
- 정용찬 외 (2012), 『201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Ericsson Consumerlab (2013). “TV and Media”. 2013. 9.
- Nielsen (2013). “Viewing On Demand”. The Cross-Platform Report. 2013. 9.
- Vubiquity (2013). “Increasing VOD Value in a Changing Consumer Market”. 2013. 4.